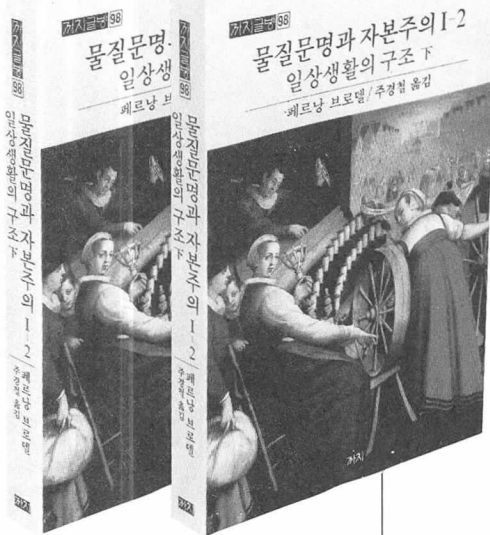


# 일상사 속에서 찾는 '세계의 무게재기'

##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다양한 인간들 낱알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그 방대한 저술의 첫 두권인 <일상생활의 구조>편에서는 전통적 역사서술 시각에서 비켜 선 인구·음식·의복·화폐 등의 일상사를 다루고 있다. 결국 그는 반복되는 일상성의 역사를 통해 사회 각층 존재양식의 특징을 발견해내고 있다.



<술병과 친구라는 확실한 즐거움>-본문중에서.

역사는 전쟁영웅이나 혁명적 왕조에 의해서만 굴러가지 않는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의·식·주와 그를 둘러싼 문화와 의식 등이 한데 어우러져 역사의 시간은 겹겹이 쌓여간다.

세계 사학계를 풍미했던 아날학파의 거두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그 다양한 인간들 낱알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15~18세기 유럽경제사로 읽힐 수 있는 이 책에서 브로델은 모든 이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구체적인 관찰과 비교사의 방법을 택한다.

근대사를 보는 그의 관점은 독특하다. 현실을 세계의 층으로 나눠 각각 <일상생활의 구조> <교환의 세계> <세계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저술했는데, 이번엔 번역된 것은 1권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의 구조>편이다.

1967년에 간행된 이 첫번째권에서 브로델은 '물질생활'이라는 광대한 분야에 펼쳐져 있는 '세계의 무게재기'를 시도한다. 전통적인 역사서술의 시각에서 다소 비켜서 있던, 예컨대 인구·음식·의복·사치품·도구·화폐·도시들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인간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이러한 문제를 통해 전(前)산업화 시기의 경제활동 영역을 전체 속에서 파악한다.

### 일상사의 반복 속에 발견되는 '일상성'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물질생활은 '일상사'의 성격을 띤다. 과연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겨우 표시가 날까말까한 일상성을 관찰하는 일이 역사의 영역에 유익한가. 이에 대해 브로델은 "일상사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일

반성, 혹은 구조가 된다. 그것은 사회 각층에 침투하여 영구히 반복되는 존재양식, 행동양식을 특징짓는다. 때로 몇몇 일화만 있어도 표시등 역할을 하여 생활양식을 밝혀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 다양한 층의 먹고 입고 사는' 일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은 구체적으로 일상의 양식인 빵, 사치스런 음식과 대중적 음식, 음료수와 흥분제, 실내가구, 의상과 유행(상권), 에너지원, 기술혁신, 화폐, 도시(하권)로 좁혀져 들어간다.

브로델은 이를테면 '음료수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에도 하나의 장을 할애한다. 같은 음료수라도 옛것과 새것, 대중적인 것과 세련된 것, 그것들의 수세기에 걸친 변화까지 온갖 방대한 자료를 동원해 캐들어간다.

### 포도주의 사치는 곧 '일종의 도피'

포도주의 경우, 당시엔 유럽 전체의 공통된 문화였지만 생산은 일부에 한정됐다. 이 한계선이 경제생활의 내용을 가르는 중요한 구분선이기도 했다. 포도주 마시는 취향도 달라서 북부 사람들의 '술잔을 단숨에 비워버리는' 행위를 남부유럽인들은 야유했다.

어쨌든 북유럽의 대소비자들 덕택에 남유럽과의 대교역이 시작됐다. 유통의 시작은 곧 기다림을 의미한다. 보존이 어려운 포도주는 곧잘 시어버려 1500년경에는 오래된 보르도산 포도주 한통이 6리브르였던 반면 새 포도주 한통값은 50리브르나 했다.

16세기부터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16세기 중반엔 포도주 소비가 매년 1인당 평균 100리터에 달했다. 거칠지만 생산량 많은 포

도주가 시골에까지 퍼졌고, 도시에서는 선술집이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술에 취하는 것, 포도주라는 사치는 왜 있을까, 포도주는 빵이 모자랄 때 값싸게 칼로리를 보충해주는 것이라는 해석 외에 브로델은 그것이 '일종의 도피'였음을 주장한다. '고통의 망각' '고민 털어버리기', 술마시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포도주, 담배, 쉽게 허락하는 여자, 여기에 바이올린 시대인 17세기가 유행시킨 음악이 더해진다.

오늘날 일반화된 '호프'를 넣은 맥주는 8-9세기에 수도원에서 시작됐다. 포도재배가 안 되는 지역에 자리잡은 맥주는 영국에서부터 네덜란드, 독일, 보헤미아, 폴란드, 모스크바 공국까지의 북유럽에 퍼졌다.

하지만 유럽에서 혁명적인 사건은 브랜디와 곡물로 만든 각종 증류주, 즉 '알콜'의 등장이다. 오랫동안 브랜디는 특히 페스트 통풍 등의 치료약으로 쓰였다. 1504년에 가사야 식초제조 길드에 증류의 특권이 부여됐고, 이후 상인들이 눈독을 들이게 됐다. 포도주에 브랜디를 넣으면 더 맛이 좋았으므로 수요는 커졌고 브랜디 주조 사업은 내륙 깊숙이 들어가 자리잡았다. 생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전 생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브랜디뿐 아니라 안틸레스제도의 설탕을 이용해 만든 럼주는 영국, 네덜란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18세기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술의 역사'에 관한 브로델의 기술은 다른 사소한 모든

일상적인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렇듯 그는 인간의 물질문명을 이루는 자잘한 일상을 역사의 차원으로 끌어들이는다.

### 물질생활 깊숙한 곳의 복합적인 질서

결론적으로 물질생활의 관계를 단번에 규정할 확실한 구분은 없다는 게 브로델의 관점이다. 모든 현실이 강제적인 필요의 산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물질생활 깊숙이 어떤 복합적인 질서가 형성되며 여기에 경제 사회 문명이 가지는 무의식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 책의 저자 페르낭 브로델(1902~1985)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했으며, 2차 세계대전중 독일군 포로로 5년동안 감옥에 있었다. 이때 그의 첫 명저인 《펠리페2세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세계》를 구상, 49년에 출판했다.

마르크 블로흐, 루시앙 페브르가 창립한 《아날》지 편집인을 지냈으며, 역사학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아날학파'의 중심에 꼽히기도 한다. 역사(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조교수)가 말했다 "무수하게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다양한 인간의 삶 속에서 환율씩 의미를 가지면서 큰 틀을 짜나가는" 대작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첫 2권의 책들은 그대로 브로델의 역사관이자 이 책들의 미덕으로 담겨 있다.

—김지원 기자

까지/A5신/총 892면/각 10,000원